

SBS 도쿄올림픽 다시 뜨겁게

“1등 방송 이어간다”

2020 도쿄올림픽 방송단이 7월 1일(목) 발대식을 열고 1등 중계방송을 다짐했다.

SBS 목동 사옥 13층 SBS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순철/이승엽(야구), 최용수/장지현(축구), 이원희(유도), 박경모/박성현(양궁), 이은철(사격), 정유인(수영), 김사니(배구), 윤진희(역도), 박종훈(체조), 차동민(태권도), 원우영(펜싱), 우선희(핸드볼) 등 15명의 해설위원과 김정일, 정석문, 배성재, 조정식, 이인권, 주시은, 정우영, 윤성호, 이동근 등 9명의 캐스터가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재열/이보미(골프), 현정화(탁구), 이용대(배드민턴), 박장순(레슬링), 정혜림(육상), 조호성(사이클) 등 쟁쟁한 스타플레이어 출신 해설위원과 최기환 캐스터가 SBS의 올림픽 중계와 함께한다.

박정훈 사장은 “도쿄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여러분은 거기 안 가시고 시원한 SBS에서, 완벽한 냉방장치가 돼 있는 스튜디오에서 오프튜브(OFF-TUBE)로 전 종목을 중계하게 됐다”고 서두를 꺼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박정훈 사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SBS가 오프튜브 중계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여러분의 기량을 100%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기술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과감하게 투자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SBS는 평창올림픽 중계에서 방송 3사 중에 압도적인 1등을 했다. 도쿄올림픽도 그 기세를 이어가리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 중계를 압도하는 중계를 하도록 준비하겠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가 1등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해설위원을 대표하여 답사에 나선 이순철 위원은 “메달을 따신 스타플레이어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저는 비록 올림픽 예선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 해설에 있어서는 금메달, 1등 방송을 하겠다. 각 종목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송단 막내로 마이크를 잡은 정유인 위원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SBS는 2020 도쿄올림픽에 최소한의 인원을 파견한다. 스포츠국, 보도국, 뉴미디어국, 기술국에서 총 10명, SBS A&T 10명, 미디어넷 4명, 프리랜서 2명이 파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주요 종목은 버추얼 스튜디오 중계로 현장감을 살릴 계획이다. 또 선수들에 대한 사전 취재 및 촬영이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그래픽과 자막을 통한 정보 전달로 차별화를 꾀한다.

스포츠국 손근영 국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결과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스포츠의 매력이다. SBS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공적인 방송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SBS는 7월 22일(목) 축구 예선 중계(한국 vs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8월 8일(일)까지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1등 중계방송을 이어간다.



10년 후 SBS의 미래를 이끌 9명의 신입사원 인사



김서영·유서희
라디오센터

문우영
인사팀

이종택
마케팅솔루션팀

임경민
미디어전략팀

백수연
광고팀

이재혁
재무팀

최용건·권승기
네트워크기술팀

7월 1일(목), 9명의 신입사원이 사령장을 받았다. 인턴십 평가를 무사히 통과하여 전원 사령장을 받은 신입사원들에게 소속 본부장, 센터장, 실장이 SBS 배지를 달아주며 앞날을 응원했다.

박정훈 사장은 “신입사원의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당당하게 입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입사원들이 운이 좋다. SBS는 지금 최전성기

에 와 있다. 프라임타임 시청률이 6년째 1등, 라디오는 7년째 1등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SBS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신입사원은 경영, 라디오 PD, 기술 세 부문에서 뽑았다. 신입사원들은 “꿈꿔왔던 SBS에 입사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10년 후 나’에 대해 “후배들에게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종택)”, “라디오의 미래를 고민하며 새로운 시도로 고군분투 중(유서희)”, “언제나 같이 일해도 좋은 사람(김서영)”이라고 답했다. ‘내가 만들어갈 SBS’에 대해서는 “SBS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문우영)”, “SBS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옳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원이 되겠다(이재혁)”, “방송기술 전문가가 되어 SBS가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권승기, 최용건)”, “더 많은 콘텐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광고팀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겠다(백수연)”고 말했다. 임경민 사우는 다음과 같은 사행시를 보내 왔다.

신: 신나 죽겠습니다!

입: 입사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사: 사실 속으로는 하루 종일 웃고 있습니다.

원: 원 없이 즐기고 지금 이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려고요!

7월 1일(목) SBS 목동 사옥 13층 SBS홀에서 2021년 상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작)는 다음과 같다.

2021 상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펜트하우스〉 시즌 2(제작팀)

2021 상반기 작품상 우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아, 미안해’ 2부작(이동원)
〈LOUD〉(이환진)
〈두시탈출 컬투쇼〉(허금옥, 김서연)
〈SBS 8뉴스〉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 논문 연속 특종 보도’(김수형, 김종원)
〈SBS뉴스〉 디지털 오리지널 ‘이슈블라’ (정명원, 정하석, 정연)

2021 상반기 작품상 특별상
〈펜트하우스〉 시즌 2 작가 김순옥
〈모범택시〉 작가 오상호
〈모범택시〉 연기자 이제훈
〈궁금한 이야기 Y〉 작가 박은영
〈LOUD〉 작가 최문경
〈미운 우리 새끼〉, 〈티키타카〉 출연자 탁재훈

2021 상반기 인센티브상
〈미운 우리 새끼〉, 〈런닝맨〉, 〈집사부일체〉, 〈동상이몽 2〉, 〈불타는 청춘〉, 〈골 때리는 그녀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8뉴스〉, 〈생활의 달인〉

2021 상반기 비전실천상
정책팀 임홍식, 엄민재 | 광고팀 유지현 | 동물농장제작사업팀 고혜린 | 예능1CP소속 최형인 | 라디오콘텐츠전략팀 이세훈 | 국제팀 김수형 | 총무팀 김병진 | 네트워크기술팀 박정식, 신호



2021 상반기 특별공로상
SBS콘텐츠허브 콘텐츠비즈니스2팀 윤상일 |
SBS M&C 콘텐츠솔루션1팀 박지원, 박상현, 최지원 |
SBS A&T 아트1팀 이용탁

2021 2분기 특종상
은상: 안희재 홍영재 원종진 배준우 손형안 정운식 |
김학휘 하정연 한소희 | 김민정 정만석 하정연 | 곽상은
동상: 한세현 고정현 유수환 | 장훈경 A&T 강동철 |
김덕현 | 이현정 조운하

2021 2분기 기획상
금상: 원종진 정운식 배준우 손형안 안희재 박원경
은상: 박상진 권지윤 소환욱 A&T 배문산 |
조동찬 정구희 이성훈 김수현 남정민 권영인
동상: 이현정 최선길 조운하 홍영재 신정은 박재현 한성희 |
유덕기 배여운 안혜민

2021 2분기 뉴미디어상
은상: 정하석 정연 A&T 오영춘 이찬수 | 신정은 민경호
동상: 강청완 | 김혜영

정치팀, 시민사회팀 이달의 기자상

보도국 정치팀 한세현·고정현·유수환 기자와, 시민사회팀 홍영재·김상민·최고운·전병남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한세현·고정현·유수환 기사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이 저지른 내부 성범죄를 고발했다. 이 보도로 성추행이 벌어진 지 열 달 동안 내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그해 가해자 1명은 승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국정원은 공개 사과하며 가해자들을 파면 등 징계했다.



홍영재·김상민·최고운·전병남 기사는 사업가와 경찰 고위직 간부 4명의 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보도 직후 경찰에 착수한 경찰은 현직 치안감과 총경, 경정급 간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다른 총경급 간부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경규×이승기×이승엽×유현주



스포츠 예능 평정 예고 - 7월 16일 첫 방송



SBS와 웨이브(wavve)가 함께하는 신규 골프 예능 프로그램 <편먹고 072(공치리)>(이하 <편먹고 공치리>)가 7월 16일(금) 첫 방송된다. <편먹고 공치리>는 이경규, 이승기, 이승엽이 각각 프로 골퍼나 연예계 골프 고수들과 편을 먹고 삼파(par)전 골프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공치리'는 '공을 친다'는 뜻과 함께, 아마추어에

겐 꿈의 스코어인 72타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푸짐한 상과 가혹한 벌칙이 기다리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예계 골프의 선두주자 이경규는 <편먹고 공치리>를 통해 구력 30년 차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젊음과 패기의 이승기는 <집사부일체>에서 골프여제 박세리에게

'프로선수도 가능할 스윙'이라고 인정받은 만큼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야구 은퇴 당시 "이제 마음껏 골프를 칠 것"이라며 골프 사랑을 밝힌 이승엽은 시원한 왼손 스윙으로 정교한 타격과 장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세 사람의 신경전은 이미 후끈 달아올랐다. 이경규는 "누구와 편먹어도 자신 있다"며 이

기기 위한 특훈에 돌입했고, 승부욕의 화신 이승기 또한 바쁜 일정을 쪼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승엽은 제작진 미팅 당시 "(이경규를) 직접 만나서 대결하기 전까지만 골프의 신으로 여기겠다"며 선공을 날렸다. 이 세 명의 MC와 편을 먹을 '공치리'로 골프계의 흥행 아이콘 유현주 프로가 고정 멤버로 합류한다. 현재 골프계에서 뜨거운 인기몰이 중인 유현주는 시원한 스윙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700만 골프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스타 플레이어이다. 세 MC 중 누구와 편먹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유현주는 누구와 편이 되든 대결에서 꼭 이기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포츠 PD 출신으로 SBS 스포츠 예능의 선두주자인 안재철 PD는 "스포츠의 짜릿한 즐거움과 예능의 재미를 잘 접목해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MC들의 자기 실력에 대한 허세와 말싸움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편먹고 공치리>는 7월 16일(금) 밤 11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탁재훈×임원희×이상민×김준호



캐릭터 확실한 네 남자의 유쾌한 토크쇼 - 7월 13일 첫 방송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환상의 케미를 보인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 김준호가 SBS 신규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연출: 백수진)으로 뭉쳤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은 무언가 결핍되고, 어딘가 삐딱한, 그리고 행복에 목마른 평균 연령 50.5세의 네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게스트를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관찰 토크쇼이다.

스튜디오가 아닌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게스트들은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장해제된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 돌싱포맨의 유쾌한 케미로 재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돌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네 명의 MC들은 게스트들의 이야기에 어딘가 삐딱하지만 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에는 진한 부러움을 나



타내는 등 웃픈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이혼,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아픔(?)과 경험이 있는 MC들인 만큼 게

스트들의 고민에 MC들의 리얼한 경험담이 녹아있는 '현실 조언'을 건네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네 남자의 유쾌한 토크쇼 <신발 벗고 돌싱포맨>은 오는 7월 13일(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SBS FIL



을 위한 언니어답터들의 맞춤 솔루션

여성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쇼 프로그램 <평생동안>이 순항 중이다. <평생동안>은 '평생 동안' (平生 童顏)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 라이프스타일까지 진정한 '동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MC를 맡은 배우 김성령과 박효주, 방송인 장영란, 김민정, 조이현이 '언니어답터'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언니들을 위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담을 들려준다. 세월을 역주행하는 미모로 대한민국 여성들

의 워너비 스타로 떠오른 김성령은 생활 속의 동안비결을 공개한다. 박효주는 보디 메이커로 20년 동안 변치 않은 라인의 비법을 공개한다. 장영란은 솔직함과 깐깐함으로 동안 인생템을 발굴해 주는 프리리뷰어로 활약한다. 아나운서 출신 뇌섹녀 김민정은 똑소리 나는 스타일개론을 선보인다. 라이프 쇼퍼 조이현은 초신상 핫템, 잇템들을 소개한다. MC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언니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 카운슬링은 물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은밀한 속사정까지 당당하고 솔직하게 해



김민정 장영란 김성령 박효주 조이현

결해 주고 있다.

<평생동안>은 SBS FIL, SBS PLUS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SBS MTV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확인할 수 있다.

SBS 플러스

나는 SOLO -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 탄생



SBS플러스와 NQQ(skyTV)가 공동 제작하는 <나는 SOLO>가 7월 14일(수) 밤 10시 30분 두 채널에서 동시에 첫 방송된다. <나는 SOLO>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연예계 솔로 남녀를 대표하는 데프콘, 전효성, 이이경이 진행을 맡아, 결혼을 위해 모인 솔로 남녀들의 데이트 연대기를 따뜻하

게 공감하고 예리하게 분석한다. 데프콘은 다양한 예능을 두루 섭렵한 '대세 재담꾼'이다. '솔로 지옥'에서 '커플 천국'을 꿈꾸는 출연자들에게 빙의해 현실적이고 재치 있는 코멘트를 날릴 것으로 기대된다.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 요정'에 등극한 전효성은 따뜻한 입담과 톡톡 튀는 매력으로 '공감 요정'으로 활약한다. 또 '예능 치트키'로 주목받는 이이경은 침착함 속에 뜻밖의 분석력으로 반전 재미를 선사한다. <나는 SOLO>는 '연애 리얼리티의 대가' 남규홍 PD의 신작이다. 사랑을 찾는 솔로 남녀들의 성지 같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물농장> 캐릭터 마스크 제작을 통한 '착한 기부 프로젝트' 협약 체결



최유미 (㈜제닉 마케팅본부장/민인식 SBS 시사교양본부장)

동물농장제작사업팀과 (주)제닉은 지난 6월 24일(목),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착한 기부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 기부 프로젝트'는 국내 마스크팩 선도기업인

(주)제닉과 함께 <TV 동물농장>의 캐릭터를 활용한 방역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동물보호 단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이다. <TV 동물농장> 캐릭터 마스크는 성인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와 아이들을 위한 소형 사이즈로 구성됐으며, 8월 초 출시 예정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셀더마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는 도쿄올림픽 SBS 국제방송센터입니다”

- 미디어IT팀 조영훈

“그래서, 진짜 가는 거야?” 회사에서 오가다 뵈는 선배님들의 인사말이었다. 어떤 날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가, 또 며칠 후에는 강행한다는 기사가 얹치락뒤치락하던 시기였다. 도쿄올림픽 출장이 예정돼 있던 나 역시 궁금했다. “그래서, 난 정말 가는 걸까?” 그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지금 도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한국을 떠난 지 어느덧 2주가 되었고, 현지 방송시스템 구축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선발대 4인은 방송단 본진이 도착하면 바로 제작 및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입국하여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출장에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PCR 검사를 받고, 제법 목직향 양의 서류들을 준비했다. 일본 입국 직후에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격리 기간 중에 먹을 에너지바, 컵라면 같은 생존

먹거리를 챙겨왔는데, 다행히 배달 앱 및 현지 가이드를 통한 테이크아웃은 허용되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었다. 만 3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나서야 출퇴근이 허용되었다. 숙소와 IBC 외 다른 곳을 방문하면 안 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숙소에서의 출발 시간과 IBC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 지금은 IBC에서 1km 남짓 떨어진 숙소로 옮겨서 도로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직위가 지정해준 루트로만 다녀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앱도 여러 개 설치했다. 매일매일 체온과 건강 상태를 리포트 하는 앱, 비콘(Beacon) 기술을 사용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을 알려주는 앱 등 다양한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GPS 로그를 항상 활성화하여 조직위가 요구하면 동선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선발대 4인은 꽤나 많은 준수사항들을 지키며, 제약 상황 속에서도 방송시스템을 계획대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IT팀 조영훈 미디어기술기획팀 조동익 부장 스포츠전략팀 김성아 차장 (SBS미디어넷) 미디어기술기획팀 신현범 차장대우

도쿄올림픽은 이전 빅 이벤트들과 달리,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 사옥에 오프뷰트 시설을 4개실 구축하여 제작에 사용한다. 도쿄에서는 목동의 부조정실과 오프뷰트실, 인제스트실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국제신호를 타임라인에 맞춰 잘 전달해주고,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인제스트 및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역대급 준비기간을 거친 도쿄올림픽이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동안 방송시스템 구축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2020 도쿄올림픽 방송단 모두가 본방송 운영과 코로나 방역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